

전남육상,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서 메달잔치

전남실업팀선수단 금메달 3개·은메달 4개·동메달 3개 획득
정일우·김은정(여수시청)·박서진(목포시청) 압도적 실력차

전남육상실업팀선수단이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메달잔치를 벌였다.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전남 여수(망마중합경기장)에서 열린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 선수권 대회 및 2022 항저우 아시안경기대회 선발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금메달은 포환던지기 한국기록보유자 정일우(여수시청)가 19m, 높이뛰기에서는 김은정(여수시청)이 1m70cm, 해머던지기에서 박서진(목포시청)이 57m97로 각각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은메달은 남자세단뛰기에서 김장우(장흥군청)가 16m02, 여자5000m에서 임경희(나주시청)가 16분47초08, 여자 10kmw(경보)에서 이세하(여수시청)와 51분 20초, 남자 해머던지기에서 윤승찬(장흥군청)선수가 59m93으로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3000mSC(장애물달리기)에서 김효수(나주시청)가 9분 35초 56, 여자 10,000m에서 임경희(나주시청)가 5,000m에 이어 연속 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포환던지기 정소은(목포시청)은 15m 14로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



정일우 선수 시상(오른쪽에서 두번째)



김은정 선수 시상(가운데)



박서진 선수 시상(오른쪽에서 두번째)

기선수권대회에서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정일우(여수시청)와 박서진(목포시청)이 선발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저희 전남선수

들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이같은 성적을 올린데에는 동계훈련과 각 지역실업팀 감독 및 코치님들이 잘 지도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고 “축하한다고 말

전했다”, “이어 이같은 좋은 성적을 거둬 전남육상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전남도청 펜싱팀 단체사진 (왼쪽부터 김수민코치, 전수인, 김지현, 최세민, 박소형, 유단우, 김향은, 유진실, 김시은, 손정민, 박다운, 김용을 감독)

전남도청 펜싱팀, 전국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개인전 은메달 2개·동메달 1개와 단체전 동메달 1개 획득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51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충북 제천(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남도청 여자펜싱팀이 에베 개인전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와 에베 단체전 동메달 1개, 사브르 개인전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에베 개인전에서 유단우(전남도청)는 8강에서 최인정(계룡시청)에 15:8로 승, 4강에 진출하여 최인정(계룡시청)에게 9:10으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이어 김향은(전남도청)은 8강에서 전희주(강원도청)를 8:7로 승, 4강전에서 정지윤(경기도청)을 상대로 15:11로 꺾으며 파죽지세로 결승전에 진출하여 최인정(계룡시청)을 만나 복수의 칼날을 닦았지만 아쉽게 패하며 은메

달을 목에 걸었다.

에베 단체전에서는 전남도청(유진실, 김향은, 박소형, 유단우)가 출전하여 4강전에서 강원도청에 38:45로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사브르 개인전에서 최세민(전남도청)은 8강전에서 양예술(인천중구청)에 15:10 승, 4강전에서 이슬(대전시청)에 15:12로 차례대로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서지연(안산시청)에게 아쉽게 패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지난 대회부터 연속으로 입상을 하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매일 힘든 훈련을 묵묵히 따라와주는 우리 선수들의 굳은 발방울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훈련에 매진해 더 나은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재환기자

함평군청 레슬링팀, 전국대회서 종합준우승



왼쪽부터, 김종민(단체전2등상장) 김가빈, 나명길, 양시은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단체전 종합2위를 비롯,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라남도체육회(김재무 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철원(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0회 전국회장기 레슬링대회에서 함평군청 소속 김가빈(25) 금메달, 양시은(27) 은메달, 나명길(26) 동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남자일반부 그레코로만형 63kg급에 출전한

김가빈은 결승전에서 김승민(광주남구청)을 만나 11:1로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양시은(그레코로만형 77kg급)은 결승전에서 김지훈(전북도청)을 만나 8:0으로 패해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나명길(그로코로만형 72kg급)은 준결승전에서 김은빈(조폐공사)에 8:4로 판정 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단체전은 출전 체급별 토탈 점수로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조폐공사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윤성용 함평군청 레슬링팀 감독은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동계훈련을 묵묵히 따라와준 우리 선수들이 있어 이번엔 종합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내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더욱 더 보완해 다음 경기에서는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함평=김광훈기자

벤투 감독 “포르투갈-우루과이가 강팀...쉬운 조 없다”

카타르월드컵서 조국 포르투갈과 운명의 대결

Group H	
PORTUGAL	
GHANA	
URUGUAY	
KOREA REPUBLIC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2 카타르월드컵 조 추첨 후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예상했다.

한국은 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본선 조 추첨 결과 포

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포함됐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9위인 한국은 8위 포르투갈, 13위 우루과이, 60위 가나와 두 장의 16강 진출 티켓을 놓고 대결한다.

최상은 아니지만 스페인, 독일과 한 조에 묶인 일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해볼 만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우루과이를 상대로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스포츠매체 ESPN에 실린 인터뷰에서 벤투 감독은 “월드컵에서 쉬운 조를 기대

하지 않았다”며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H조에서 강팀이라는 평가에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11월24일 우루과이와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 뒤 11월28일 가나, 12월8일 포르투갈과 차례대로 만난다.

포르투갈 출신의 벤투 감독은 월드컵 무대에서 조국을 상대하게 됐다.

현역 시절이던 2002 한일월드컵 당시 조별리그 최종전인 한국과의 경기에 출전했던 벤투 감독은 20년 뒤 적장이 돼 포르투갈을 만나게 됐다.

한국이 16강에 오르면 G조를 통과한 팀과 대결한다. G조에는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 속해 있다.

‘박인혁 PK 동점골’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이랜드와 무승부

6경기 무패행진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가 서울 이랜드와 비기며 6경기 무패를 달렸다.

전남은 2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2 8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랜드와 1-1 무승부를 거뒀다. 최근 6경기 무패(3승3무)를 달린 전남은 승점 12점을 쌓았다.

이랜드는 최근 5경기 무승(4무1패) 부진에 빠지며 승점 10점을 기록했다.

이랜드가 전반 33분 이동훈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이동훈의 시즌 첫 골이다.

반격에 나선 전남은 후반 교체로 들어온 박인혁이 동점골로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후반 29분 이랜드 수비수 이재익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오른발 차넣었다.

전남은 경기 막판 수비수 김태현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역전엔 실패했다.



전남 드래곤즈 박인혁 동점골.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결국 양 팀은 추가 득점에 실패한 채 무승부 로 경기를 마쳤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길어지는 황의조 골 침묵, 보르도 최하위 탈출 실패

릴과 리그앙 원정경기 교체로 나서 한차례 슈팅, 0-0 무승부
두 달 가까이 정규리그 득점 실패, 대표팀에서도 공격력 실종

황의조의 골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을 뿐 아니라 소속팀 지롱댕 보르도에서도 두 달 가까이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황의조의 침묵 속에 보르도 역시 최하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보르도는 3일(한국시간) 프랑스 노르주 빌뇌브다스크의 스타드 피에르 모루아에서 열린 LOSC 릴과 2021-22 프랑스 리그 앙 원정경기에서 한 명이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 속에서도 득점없이 비겼다.

보르도는 최근 리그 3연속 패배 수렁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4승 11무 15패(승점 23)에 그치며 메스(4승 11무 14패, 승점 23)에 골득실에서 뒤진 최하위에 머물렀다.

LOSC 릴이 리그 6위에 있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보르도로서는 강등권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절대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다.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 17위를 해야 하는데 현재 17위에 있는 클레르몽 푸트(7승 7무 15패)와 승점차가 5점이나 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에녹 파탱이 전반 21분에 이어 전반 35분 연속 경고 받고 퇴장당하며 수적인 열세에 몰렸다. 보르도는 전반 44분 알베르트 엘리스를 빼고 체력 안배를 위해 아껴뒀던 황의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의조는 교체되자마자 릴의 수비진을 단숨에 뚫는 돌파로 기회를 잡는 듯 했지만 수비수가 따라붙으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후



황의조는 릴의 수비진에 품목 묶여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침묵했다.

황의조는 이날 경기에서도 득점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월 14일 랑스와 경기에서 득점을 올린 이후 리그에서 6경기째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황의조는 대표팀에서도 지난해 6월 5일 고양에서 열린 터크메니스탄과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홈경기에서 2골을 넣은 이후 10개월 동안 A매치 골을 기록하지 못했다.